

생분해성 종이코팅 도시락용기 개발 매립시 흙으로 환원, 수차례 재생가능

환경문제의 대두로 인한 포장업체의 파장이 여전하다. 포장재라고 하면 무조건 폐기물 발생의 주범으로 오인받아 모든 규제 대상화되어 버리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이에 업체는 환경친화적인 포장재에 대한 기술력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각 포장재업체마다 친환경적인 자사 포장재의 우수성을 역설하기에 여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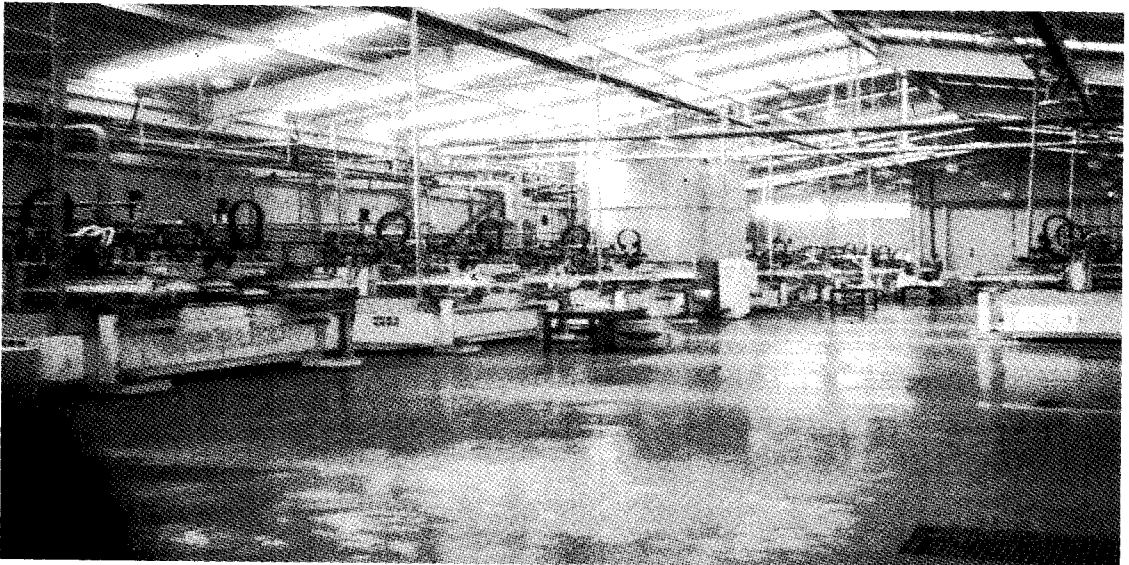
그린엠(주)은 최근 환경친화적 포장재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부각되고 있는 포장재 중의 하나로 빼놓을 수 없는 종이를 재질로 한 종이용기생산업체로 1991년 3월 현 이광문 사장이 (주)한일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 그 시작이다.

설립 초기에는 일본, 덴마크, 영국 등 선진국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펄프몰드를 이용한 축산물 및 과일 트레이의 생산에 주력했던 (주)한일은 1995년 '폐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발표되면서 무공해 종이용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난 96년 9월부터 환경친화성이 우수한 펄프몰딩 도시락 용기를 생산, 보급해 왔다.

그린엠(주)이 (주)한일이라는 회사명으로 개발해 생산해 오던 펄프몰딩 도시락 용기는 일본 후지콘제작소와 공동으로 3년여간 2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100% 무공해 식품용기로서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삼림의 보호를 위해 목재가 아닌 1년생 섬유펄프와 재생용지를 원료로 만들



▶ 그린엠(주)의 김제공장 전경.



▲ 그린엠(주)의 공장 내부설비

어진 제품이다.

“개발과정에서 많은 투자와 시간, 그리고 노력이 필요했지만 종이라는 재질이 주는 낫설음을 내수성과 내열성, 그리고 내유성, 내산성, 내염성 등에서 기존 합성수지와 똑같은 특성을 지녔다는 장점으로 충분히 커버해 일반적으로 기존 합성수지 용기에 익숙해져 있던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라는 서현열 전무의 설명처럼 이 용기는 지금까지 주로 합성수지용기로 활용되던 도시락용기, 냉동식품용기, 컵라면용기, 화장품용기 등으로 적용되어 왔다.

환경문제의 대두로 많은 법적 규제안들이 발표되고 환경친화적인 포장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규제조치 등에 힘입어 환경친화형 종이용기의 판매를 강화하며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사명을 변경한 바 있는 그린엠(주)은 지난 97년 9월 합성수지 연차별 감량화지침의 시행방침이 발표되면서부터 더욱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전북 김제에 위치한 그린엠(주)의 김제공장은 1991년 3월에 건립되어 94년 계란팩 및 난자를 양산체제로 돌입한 후 그해 5월 환경마크 획득 및 증축 등 섭없는 발전을 거듭해 온 바 있다.

그린엠(주)의 김제공장은 첨단시설과 기술을 보유하고 일산 총 117만개의 종이용기가 생산되는 규모로 앞으로 더 많은 시설의 증설과 증축, 그리고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게 다가설 수 있는 종이용기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린엠(주)은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는 모두 자연에서 온 것이므로 먹거리를 담는 그릇 역시도 자연에서 소재를 찾아야 하고, 이 종이용기가 폐기될 때에도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른 숲이 되어야 한다는 일념아래 무공해 종이용기를 생산해 왔다.

그린엠(주)에서 생산하는 종이용기의 특징은 담겨져 있는 음식의 신선함을 유지해 주고 인체



▶ 그린엠(주)의
계란트레이 생산공정

에 무해하며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친화형 용기로 최근 그 실용성을 재평가받고 있기도 한데서 전무는 “최근 컵라면용기를 개발해 그 가능성에 대한 시험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97년 5월부터 꾸준히 준비해 온 이번 신제품은 연초부터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라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린엠(주)의 종이용기에 대한 실용성을 설명했다.

현재 도시락, 김밥용기 등의 용도로 주로 쓰이고있는 그린엠(주)의 종이도시락용기는 홍익회와 마사회, 공공기관 및 야구장 등에 주로 출하되고 있는데 지난 11월 서울시에서 공공장소에서 합성수지용기 사용금지조치를 내리면서 종이용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대중화가 기대된다.

IMF 시대라는 말이 무슨 유행어가 되어버린 어려운 시기에도 그린엠(주)은 그간 고수해 온 환경친화적인 포장소재 개발에 대한 의지로 어

려움 속에도 희망적인 한 해를 기약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포장재인 종이용기를 생산해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린엠(주)은 신입전이 될 수도 있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가지는 기준보다는 선발 후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소정의 기준을 통과해 일단 그린엠(주)의 신입사원이 되고 나면, 2주간 기업의 경영방침과 그린엠(주)만의 특성, 환경친화적인 포장재에 대한 내용 등을 주제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실시하며, 2주간은김제의 공장에 신입사원들을 배치해 현장체험을 하게 하고, 2주간은 고객업체를 탐방해 4주간의 교육기간동안 익힌 노하우를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며 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짜여진 6주간의 프로그램을 마스터하고 나면 환경친화적인 종이용기를 생산하는 그린엠(주)의 정직원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최근 일본과의 기술교류를 통해 코팅 후에도 재활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을 개발, 소평백 생산의 준비도 하고 있는 등 사업확장에 여념이 없는 그린엠(주)은 현재 10%의 수출과 90%에 가까운 내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신기술이 개발로 인한 경쟁력의 강화로 앞으로는 수출과 내수의 비율을 6:4정도로 안착시켜갈 계획이다.

향후 1회용품의 사용규제 방안 등 정책적인 문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내 합성수지 년차별 감량화 지침도 실시하게 되어 있어 재활용이 가능하고 환경에 무해한 종이용기를 개발하는 그린엠(주)의 경우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도시락용기 등 음식용기의

생산에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화장품 등의 트레이제품과 농협, 축협 등의 포장용기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많은 분야에서 그린엠(주)이 생산하는 환경친화적 소재인 종이를 이용한 포장재들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인식확산이라고 강조하는 서 전무는 “합성수지 포장재는 간편하기는 하지만 국내의 주된 폐기방법인 매립이나 소각시 환경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소비자들의 인식확산으로 환경친화적 소재인 종이포장재가 우리 실생활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랜기간 환경친화적 종이용기의 생산과 기술력 축적해 노력해 온 그린엠(주)를 방문하면서, 무조건 포장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불만만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포장업체 스스로가 환경친화적 소재에 대한 개발에 주력하고 이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를 다시한번 상기해 보았다.

또한 무수히 회자되는 동안 우리의 관념 속으로 젖어들고 있을지 모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다시한번 다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윤지은 기자



▶ 그린엠(주)의 환경친화형 종이도시락용기 생산공정

매년 2월 25일
포장인의 날!

 올해 포장인의 날에는
제1회 한용교 포장인상의
시상이 있습니다.